

광주 남구 최근 2년 청년 4천900여명 이탈…대책 시급

만 19~39세…관련 예산 0.47% 그쳐
규모 비슷한 노인 예산은 42배 많아
신종혁 구의원 “세대 간 불평등” 지적

광주 남구의 청년층이 최근 2년간 4천900명가량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과 예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 19~39세 청년 인구 수는 4만7천300명으로, 지난 2022년(5만2천518명) 대비 1천95명(9.3%)이 감소했다.

광주 지역 나머지 4개 구의 2022년 청년 인구 수는 동구 2만9천87명, 서구 8만25명, 북구 11만6천780명, 광산구 11만3천84명이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동구 2만8천725명, 서구 7만3천503명, 북구 10만9천355명, 광산구 10만5천406명으로 각각 1천172명(3.92%), 6천702명(8.35%), 7천355명(6.32%), 7천678명(6.78%) 줄었다.

청년 인구 감소의 이유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 환경 등이 복합 작용해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청년 정책과 투입 예산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남구가 국·시·구비를 포함해 올해 편성 한 예산은 현재까지 6천58억원으로, 청년 청탁 사업 24건에 70억6천600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42억원은 ‘백운광장 도시 재생 어울림센터’ 조성비여서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28억6천600만원에 그친다. 이는 올해 예산의 0.47% 수준이다.

반면 동구는 올해 예산 4천2억5천38만원 중 1.2%에 달하는 487억9천만원을 청년 정책에 투입해 광주 5개 자치구中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6천700억5천10만원 중 2.07%로 70만2천원을 투입한 서구(3.9%)였다.

올해 예산이 1조원 안팎인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113억7천100만원과 67억4천288만7천원을 배분해 비율은 1.09%, 0.68% 정도로 산출됐다.

남구의 예산 편성이 세대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으뜸 효’로 대표되는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 수는 24건으로 청년과 같지만, 예산은 1천218억 원으로 42배 이상 차이 나서다.

이와 관련, 신종혁 남구의원은 최근 열린 제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기준 남구 인구 중 노인은 4만5천400명, 청년은 4만7천455명”이라며 세대 간 예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청년들은 남구를 떠나고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다”며 “남구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 완공될 백운광장 어울림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청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남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뜨거운 도심을 식혀라!’ 한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으며 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중앙선 도로에 설치된 클린로드가 열을 내뿜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들 사이로 물을 뿐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 ‘노쇼 사기’ 129건·피해액 20억 육박

군인·교정·소방공무원 사칭 많아
경찰, 24명 입건…이중 3명 구속

올해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액이 2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수는 129건이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이들이 물품 또는 먹거리를 주문한 후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면 한꺼번에 비용을 결

제하겠다는 수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칭 대상은 군인·교정·소방 공무원 순으로 많았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4월 이후에는 특정 정당 관계자를 칭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전담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사기와 전자금융·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했고 3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사기 전화를 거는 해외 거점 콜센터

팀, 국제전화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꾸며주는 교환팀, 피해금 세탁팀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이들이 저지를 범죄가 몇 건인진 아직 명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경찰은 노쇼 사기와 관련해 피의자 4명을 추가로 특정,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후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CYMK